

훈민정음학회 2009 전국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훈민정음을 통한 외국어 표기

일시: 2009년 10월 9일 오후 1시~6시
장소: 서울대학교 신양인문학술정보관(4동)
3층 국제회의실
주최: 사단법인 훈민정음학회



사단
법인

훈민정음학회

— 일 정 —

13:00~13:20 개회식 사회: 권인한(성균관대)
환영사 김주원(회장, 서울대)
축사 이기문(서울대 명예교수)

제1부 훈민정음을 통한 외국어 표기(13:20~15:20) 사회: 이현희(서울대)
訓民正音を 사용한 漢語音 표기 신용권(인천대)
훈민정음과 일본어 표기 정승혜(수원여대)
훈민정음과 실담문자 안주호(순천향대) · 이태승(위덕대)

15:20~15:40 휴식

제2부 특별 발표(15:40~17:40) 사회: 백두현(경북대)
새로 발견된 <훈민정음> 소개 남권희(경북대)
타이완 원주민 부눈족 언어의 한글 서사 방안 전광진(성균관대)
찌아찌아어의 한글 서사체계 이호영(서울대)

17:40~18:00 정기 총회 사회: 권인한(성균관대)

18:00~20:00 리셉션(서울대학교 교수회관)

환 영 사

존경하는 훈민정음학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멀리서 만 가지 일을 제치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먼저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온 국민이 기뻐해마지 않는 한글날입니다.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에 으뜸 발명품이라 할 한글의 창제와 반포를 기리는 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학술대회를 열게 되어 기쁨이 더욱 큼니다.

저희 훈민정음학회는 잘 아시는 대로 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설립된 학회입니다. 그 한 가지는 훈민정음을 가진 한국이 세계 언어학계에서 문자학의 중심지가 되는 것입니다. 국내학술대회와 국제학술대회를 매년 번갈아 열면서 세계의 저명학자들을 초청하여 논문 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문자학의 최신 연구동향을 공유하고, 전문 학자들의 논문을 실은 문자학 관련 저널을 발간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명실상부한 국제학술지 **SCRIPTA** 창간호를 내어 놓았습니다. 앞으로 이 학술지를 중심으로 문자학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한글 나눔입니다. 바야흐로 획일화의 시기를 맞이하여 세계의 소수민족의 언어는 절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세계의 언어학자들은 이러한 절멸 위기에 처한 언어를 보전하려고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언어가 절멸한다는 것은 그 언어에 담겨 있는 사고 체계와 축적된 경험, 지혜가 사라지는 것이며 인류의 문화 다양성의 관점에서 보면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보물 창고가 통째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용 인구가 적은데다가 글자까지 없으면 그 위기는 가속됩니다. 이들에게 글자가 있으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지금까지 알파벳 즉 로마자가 이러한 역할을 해왔습니다만, 이제 한글도 이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이려고 합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의 짜아짜아족과 한글을 나눈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 그 의의가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학회는 이 두 가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출발점에 섰습니다. 뿌

려진 씨가 새싹을 뽀족 내밀었습니다. 이 싹이 장차 튼튼한 아름드리나무로 자
랄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발표는 훈민정음의 과거와 미래라고도 할 수 있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발표를 해 주시는 여섯 분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러
한 학문 연찬의 장이 이루어지도록 뒤에서 준비해 주신 임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리면서, 아울러 앞으로 학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께서 잘 이끌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환영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2009년 10월 9일

김주원 올림

목차

訓民正音を 사용한 漢語音 표기	신용권	1
훈민정음과 일본어 표기	정승혜	33
훈민정음과 실담문자	안주호 · 이태승	51
새로 발견된 <훈민정음> 소개	남권희	77
타이완 원주민 부눈족 언어의 한글 서사 방안	전광진	79
찌아찌아어의 한글 서사체계	이호영	93